

결혼이주여성의 지각된 사회적지지, 대처전략, 문화적응태도가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와 경로

한석우^{1*}, 김지운²

¹원광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²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The Structure and Pathway in which Perceived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y and Acculturative Attitude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influences Acculturative Stress

Suk-Woo Han^{1*}, Ji-Woon Kim²

¹Dept. of Social Welfare, Wonkwang Health University

²Dept. of Social Welfare, Konyang Cyber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소를 중심으로 경로분석을 하여 경로구조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돕기 위한 정책과 실천적 방안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지각된 사회적지지, 대처전략, 문화적응태도가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구조를 심리 스트레스이론을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실증적 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통제변수로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연령, 교육수준, 결혼기간, 소득수준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C지역과 J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편의표집과 눈덩이표집을 병행하여 설문조사하여 수집하였으며, 204명을 분석에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이주여성의 인지적 요인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대처전략, 문화적응태도들의 영향 경로구조를 분석한 결과 문화적응태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통합적인 문화적응태도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밝혔으며, 결혼이주여성이 우리사회에 동화될길 강요하는 것 보다 결혼이주여성의 모국 문화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공존할 수 있는 정책과 실천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라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identify path structures through pathway analysis with an emphasis on the cognitive elements that influence the acculturative stress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designed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practical measures and policies to support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to adjust their lives in the culture. This study has established research model on the path structure according to the psychological stress theory as to how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y, and acculturative attitude recognized as a cognitive element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on the acculturative stress and implement practical verification. In addition, control variables for the use of ages, education level, period of marriage, and income level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were analyzed. To obtain data for the study, convenience sampling and snowball sampling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that resided in the area of C and J were conducted simultaneously through surveys and applied to the analysis of 204 cases. Analysis of the path structure of influence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and acculturative attitudes that were perceived as a cognitive element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influencing acculturative stress revealed that these factors were specifically weighted towards acculturative. Moreover, comprehensive acculturative attitude was identified as a crucial variable reducing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during the acculturative procedures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This assumes that establishing and performing policies supporting co-existence of homeland cultures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and Korean cultures might be an efficient action for dealing with acculturative stress rather than forcing them to adjust to Korean culture.

Keywords :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y, acculturative attitude

본 논문은 2017년도 원광보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Corresponding Author : Suk-Woo Han(Wonkwang Health Univ.)

Tel: +82-63-840-1383 email: swhan@wu.ac.kr

Received July 13, 2018

Revised (1st July 30, 2018, 2nd August 13, 2018)

Accepted October 5, 2018

Published October 31, 2018

1. 서론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진행된 세계화의 변화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 추세는 2010년 초까지 매년 10% 이상 증가추세였으며, 2010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3년 결혼이민자 수는 149,764명이며 이 중 127,811명이 결혼이주여성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이 85% 이상이다 [1]. 이 후 2016년 결혼이민자 수는 150,605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결혼이주여성의 수는 126,923명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매년 국제결혼의 건수도 증가하지만 다문화가정 부부의 이혼 수도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청의 2016년 혼인·이혼 통계에서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이혼 건수는 2006년도 3,933건에서 2016년도 5,610건으로 70.0% 증가하였다[2 재인용].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갈등적 스트레스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이민자들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정체성, 가치, 행동, 인지와 태도에 관련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이 경험 속에서 겪는 어려움은 문화적응스트레스라는 심리적 갈등을 초래한다[3]. 특히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농촌총각의 결혼문제가 맞물려 결혼과정이 상업적으로 변질되고 결혼이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전혀 다른 문화의 배우자를 만나게 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문화에 대한 정보를 가지기 어렵고, 상대방 문화를 이해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이질적 문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문제는 자녀양육문제나 가족불화의 원인이 되어 더욱 복잡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4].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적응과정에서 겪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실천적 접근의 방안을 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초기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 차이를 주로 보고하였으나 변인별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은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

의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며, 이 후 연구들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인지적 요인들에 주목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결혼이주여성은 국제이주와 결혼을 동시에 선택한 상황에서 한국사회라는 주류사회와 다문화가족에서의 문화적응이라는 이중과제를 안고 있으며[6], 일반여성과 달리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혼란과 갈등을 극복해야만 한다. 이때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지지 자원과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전략, 그리고 유지해 왔던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바탕으로 선택해야만 하는 문화적응태도는 결혼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선행연구들에서 남편과 가족의 정서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 7]. 가족관계 외에도 이웃, 친구 및 고향사람들의 모임과 같은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회적지지도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대처전략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7]. 노하나[9]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태도에서 통합과 동화의 유형을 많이 보일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낮게 나타났음을 밝혔고, 양옥경 외[6]의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태도와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수준, 갈등 상황에 대한 인지적 대처전략 그리고 어떠한 문화적응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문화적응 과정에서 인식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단순상관관계 위주의 영향을 밝히는 연구로, 이들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 상호영향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는 없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지지, 대처전략, 문화적응태도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구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설명하고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완화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적응을 돕기 위한 정책과 실천적 방안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사회적지지와 문화적응스트레스

선행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긍정적인 사회적지지가 문화적응스트레스 완화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6, 7]. 김희주 외[10]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지지가 긍정적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사회적지지가 대처자원 형태로 대처전략과의 관계성으로 볼 수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적 지원을 추구하고 있는 개인은 사회적지원 수준의 만족에 따라 대처 방식의 유형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박주희 외 [11]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지지가 대처전략과 상호작용으로 문화적응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하나[9]의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지지가 문화적응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문화적응태도를 매개로 문화적응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이는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이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스트레스 관계의 매개변수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지지가 대처전략과 문화적응유형을 매개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2.2 대처전략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개인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자원 정도를 스스로 평가하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스트레스 반응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된다. 이에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대처자원 및 대처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 대처전략이 문화적응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다[12].

안준희 외[7]는 문화적응 과정에서의 대처양식은 새로운 문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전략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박주희 외[11]는 이주여성의 대처전략이 문화적응태도와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최혜지[13]의 연구에서는 이주여성들이 긍정적 대처양식을 사용할수록 통합적인 문화적응 유형을 보임을 보고하였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대처전략이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매개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2.3 문화적응태도와 문화적응스트레스

선행연구들은 이주민의 통합적 문화적응 유형이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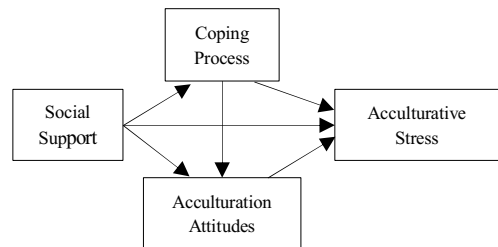
적응스트레스와 부적(-) 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최혜지[13]는 통합유형의 문화적응태도가 문화적응스트레스 완화에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박주희 외[11]의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태도는 대부분 통합과 동화 유형으로 확인되었으며, 통합과 동화 유형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동화 유형만을 사용하는 결혼이주여성보다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진[14]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문화의 수용 여부보다는 기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 여부가 개인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건강을 예언하는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문화적응태도가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침을 밝힌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태도가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주여성의 사회적지지, 대처전략과 함께 어떠한 경로구조로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지각된 사회적지지, 대처전략, 문화적응태도가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와 경로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ig.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control variable: Age, Education, marriage-duration, income)

Fig. 1. Research Model

3.2 측정도구

3.2.1 문화적응스트레스

한국에 정착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측정을 위해 손의성[15]이 개발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24 문항으로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신뢰도는 ‘가족관계’ $\alpha=.714$, ‘차별’ $\alpha=.880$, ‘언어사회적 장벽’ $\alpha=.685$, ‘사회문화적 소외’ $\alpha=.783$, ‘정체성 혼란’ $\alpha=.643$, ‘심리적 고통’ $\alpha=.735$ 로 나타났으며, 전체는 $\alpha=.875$ 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3.2.2 사회적지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회적지지 척도는 박지원[1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구성은 가족으로부터 지지만족도 측정을 위해 23문항, 주요 타인으로부터 지지만족도 19문항으로 전체 4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가족지지가 $\alpha=.901$, 타인지지는 $\alpha=.746$ 로 나타났으며, 전체는 $\alpha=.809$ 로 나타났다.

3.2.3 대처전략

결혼이주여성의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전략을 측정하기 위해서 Lazarus와 Folkman[17]이 개발한 척도를 김정희[18]가 번안 사용한 문항들 중 결혼이주여성의 생활 환경에 관련된 총 22문항을 활용하였으며, 문제중심 대처를 묻는 9문항과 정서중심 대처를 묻는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문제중심 대처 요인은 $\alpha=.834$ 이며, 정서중심 대처 요인은 $\alpha=.682$ 로 나타났으며, 전체는 $\alpha=.759$ 로 나타났다.

3.2.4 문화적응태도

본 연구의 문화적응태도 척도는 Berry가 개발한 ‘동아시아문화적응 척도(EAAM)’를 노하나[9]가 번안 사용한 문항 중 23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통합 5문항, 동화 4문항, 분리 5문항, 주변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통합’ $\alpha=.811$, ‘동화’ $\alpha=.856$, ‘분리’ $\alpha=.581$, ‘주변화’ $\alpha=.717$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는 $\alpha=.823$ 로 나타났다.

3.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C 지역과 J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은 지역별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A 대학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지

역별 결혼이주여성 공동체를 방문하여 설문을 배포 조사하는 편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7년11월부터 2018년3월까지로 수집된 211부중 204부를 본 연구의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3.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은 김계수[19]의 분석을 기초하여 2단계 접근방법을 이용하였다. 1단계는 이론적 잠재변수들이 이론적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측정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측정모형 분석을 하였으며, 측정모형에 포함된 요인과 변수들에 대해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설정한 연구모형에 나타난 요인간의 관계를 연결한 이론모형을 검증하는 단계이다. 설정된 연구모형의 적합성 확인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한 다음 전체적인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은 AMOS 18.0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N(204)	%	
Age	~30	109	53.4
	31~40	78	38.2
	41~	17	8.4
Education	Middle-sch.	61	29.9
	High-sch.	94	46.1
	Univ.(or Coll.)	49	24.0
Marriage-duration	~ 1 year	14	6.9
	1 ~ 3 year	48	23.5
	3 ~ 5 year	63	30.9
	5 ~ 7 year	48	23.5
	7 year ~	31	15.2
Income	~ 100(MW)	15	7.3
	100 ~ 200	63	30.9
	200 ~ 300	54	26.5
	300 ~	24	11.8
	Null	48	23.5

대상자의 연령대를 보면 30세 미만인 20대가 53.4%로 가장 많았고, 교육수준은 고졸이 46.1%로 가장 많았다. 결혼기간은 3년에서 5년 사이가 30.9%로 가장 많았고,

소득수준은 월 평균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30.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 23.5%로, 이들은 가정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4.2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의 변수들에 대한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적합도 지수들은 Table 2.와 같으며, χ^2 값 172.32, $df=4943$, $p=.000$ 으로 p 값이 0.05보다 작게 나타나 적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χ^2 값은 사례수와 문항수의 영향으로 모형과 자료의 불일치를 추정하는 경향이 χ^2 값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 여러 적합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9]. 이에 다른 적합도 지수들이 Table 2.와 같이 측정모형이 측정 자료를 비교적 잘 적합 시키고 있으며, 종합적인 판단에 의한 적합도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된다.

Table 2. Fit index of Measurement Model

χ^2 -statistics		GFI	RMSEA	NFI	CFI	NNFI
χ^2	p					
172.32 (df=4943)	.000	.863	.049	.919	.961	.915
N=204						

또한 연구에서 제시한 4개의 잠재변수의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사회적지지 및 문화적응스트레스가 χ^2 값의 p 값이 .000으로 0.05보다 작아 낮은 적합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의 적합도 지수들이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4.3 연구모형의 구조분석

4.3.1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로 사용되는 각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으로 적률상관계수(P.C.C.)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변수간의 상관계수들이 0.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또한 분산팽창인자(VIF)를 확인해 본 결과, 1.138~1.771의 범위로 2.5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Table 3. Correlation and Variance inflation factor

	1	2	3	4	5	6
1	1					
2	-.185*	1				
3	-.074	-.093	1			
4	.128*	.209**	.184*	1		
5	-.048	.044	.038	.196*	1	
6	-.471**	.361**	.291**	.413**	.231**	1
7	.012	.079	.288**	-.294**	.294**	.379**
VIF	1.138	1.712	1.487	1.449	1.549	1.771

* $p<.05$, ** $p<.01$, *** $p<.001$

(1.Age, 2.Education, 3.Marriage-dur., 4.Income, 5.Social supp., 6.Coping pro., 7.Acculturative att.)

4.3.2 연구모형의 구조분석

최초의 연구모형에는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잠재변수 및 통제변수들이 투입되었으며, 연구모형은 Fig. 2에 제시되었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hi^2=271.027(df=2748)$ 이며, 관련 적합도 지수들이 본 구조모형이 자료를 비교적 잘 적합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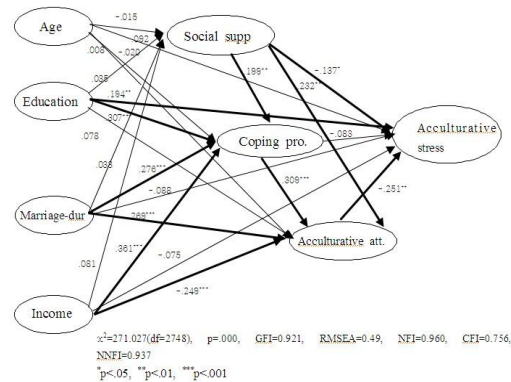


Fig. 2. First Research Model

그러나 최초연구모형의 경로 중 통제변수로 투입된 ‘연령’은 종속변수인 문화적응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모형의 다른 잠재변수들과 유의미한 경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을 구조모형에서 완전히 제거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연구모형에서 ‘연령’을 제외한 모형과 제외하지 않은 모형은 잠재변수의 수가 서로 다른 모형으로 단순히 χ^2 통계량의 변화를 기준으로 두 모형을 비교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두 모형의 비교는 다중상관(SMC)과 이론적·경험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19]. 이에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Table 4.의 결과에서 통제변수 ‘연령’을 제외한 모형과 제외하지 않은 모형 간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수정된 모형에 대한 선정 기준은 이론적·경험적 근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Homogeneity of First Model and Modified model

	$\chi^2(df)$	GFI	RMSEA	NFI	CFI	NNFI	SMC
A	271.027 (df=2748)	0.921	0.490	0.960	0.756	0.937	0.182
B	254.128 (df=2679)	0.927	0.504	0.969	0.813	0.936	0.182
N=204							
A: First Model , B: Modified model(exclusion 'Age')							

최근의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연령 요인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7]. 본 연구에서는 최근 연구의 경향을 반영하여 최초로 설정하였던 연구모형에서 통제변수 ‘연령’을 제외하였다. 선행연구 결과의 이론적·경험적 근거로 하여 ‘연령’을 제외한 수정된 연구모형에 대해 모형의 적합도는 Table 6.과 같으며, 최초의 연구모형과 비교해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설명하는데 전반적인 모형 적합도는 큰 차이가 없어, 수정된 최종 연구모형으로 선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수정된 최종 연구모형은 Fig.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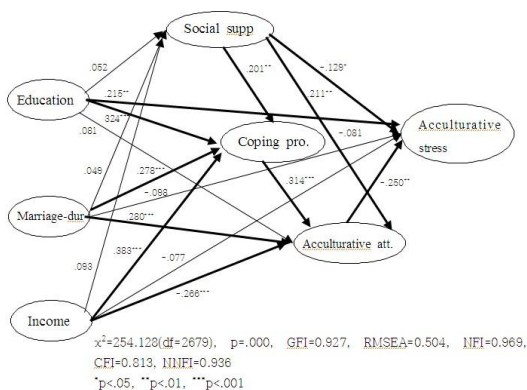


Fig. 3. Final Research Model

‘연령’이 제외된 최종모형에서 경로들 중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하는 모형수정과정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하나씩 제거하여 연구모형의 χ^2 통계량이 유의

미한 수준에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제거하였다. 특히 최종 수정된 연구모형을 얻는 과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모형다듬기의 과정에서 이전 연구모형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던 ‘사회적지지’와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경로 표준화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었다. 최종 연구모형에서 모형다듬기에 의해 최종 연구모형의 $\chi^2=254.128(df=2679)$ 과 최종 수정된 모형 $\chi^2=268.944(df=2685)$ 으로 수정된 연구모형의 χ^2 통계량의 차이는 14.816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자유도 6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4.3.3 효과분해 및 경로분석

최종 수정된 모형에서 추정할 수 있는 변수들 사이의 효과를 분해하여 Table 5.로 표현하였다.

Table 5. Path and Effect analysis

Path	Direct Eff.	Indirect Eff.(t)	Total Eff.
Education→Coping pro.	.299	-	.299
Education→Acculturative stress	.202	-.022(1.29)	.180
Marriage-dur→Coping pro.	.269	-	.269
Marriage-dur→Acculturation att.	.272	-	.272
Marriage-dur→Acculturative stress	-	-.085(1.52)	-.085
Income→Coping pro.	.377	-	.377
Income→Acculturation att.	.259	-	.259
Income→Acculturative stress	-	-.090(2.00)	-.090
Social supp→Coping pro.	.192	-	.192
Social supp→Acculturation att.	.203	.057(1.50)	.260
Social supp→Acculturative stress	-	-.063(2.03)	-.063
Coping pro.→Acculturative stress	-	-.072(2.40)	-.072
Acculturation att.→Acculturative stress	-.242	-	-.242

분해된 변수들 간의 효과는 종속변수인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따라, 각 변수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다른 요인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다른 요인을 매개하지 않고 종속변수인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수준’, ‘문화적응태도’이다.

[경로 1]

1. 교육수준 → 문화적응스트레스
2. 문화적응태도 → 문화적응스트레스

두 번째의 경우는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관계는 없고, 매개적인 다른 요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경로 2]

1. 결혼기간 → 문화적응스트레스
 - ① 결혼기간→대처전략→문화적응태도→문화적응스트레스
 - ② 결혼기간→문화적응태도→문화적응스트레스
2. 소득수준 → 문화적응스트레스
 - ① 소득수준→대처전략→문화적응태도→문화적응스트레스
 - ② 소득수준→문화적응태도→문화적응스트레스
3. 사회적지지 → 문화적응스트레스
 - ① 사회적지지→대처전략→문화적응태도→문화적응스트레스
 - ② 사회적지지→문화적응태도→문화적응스트레스
4. 대처전략→문화적응태도→문화적응스트레스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결정적인 요인이 문화적응태도였으며,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경험에서 인지적 부분에 대해 주목해야 함을 보여준다. 즉, 이주여성의 주류문화에 대한 적응태도와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 국제결혼으로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대처전략, 문화적응태도를 독립변수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모형의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검증하기 위하여 투입된 통제변수들 중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은 잠재변수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옥경 외[6]과 안준희 외[7]의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관계가 없음을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도 이들과 일치된 결과로 나타났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수준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결혼을 통해 이주한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의 모국이 상대적으로 국민소득이 낮아 결혼이주로 사회적·경제적 지위 상승을 기대하였으나,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대상자들의 거주지역이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인 점은 그들의 상실감이 더욱 반영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는 최혜지[13], 안준희 외[7]의 연구결과에서도 지지되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결혼기간과 소득수준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결혼이주여성의 인지적 대처전략과 문화적응태도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될 것이며, 문화적 충격 및 적응스트레스가 감소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의 안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 지위 상승의 기대 충족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진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결혼기간 및 소득수준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단순 상관관계를 기초로 설명된 결과들이다. 본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의 결혼기간과 소득수준은 결혼이주여성의 인지적 대처능력과 문화적응태도를 매개로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문제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대처전략을 사용하며, 문화적응태도가 통합적이고 동화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결혼기간과 소득수준은 대처전략과 문화적응태도 요인의 조건을 좌우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비록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결정요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요인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지각된 사회적지

지가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대처전략과 문화적응태도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지지 요인은 이주여성의 대처전략과 문화적응태도의 조건을 좌우하는 요인이며,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결정하는 결정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결과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밀접한 관계를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다. 노하나[9]는 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매개변수로 문화적응유형 요인을 연구한 결과 부분매개 효과를 설명하였다. 즉 직접경로와 간접경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박순희[20]도 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결혼생활안정에 문화적응유형을 매개요인으로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부분매개 효과를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주여성의 대처전략, 문화적응태도 요인이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매개적 효과를 나타낸 본 연구결과와 일치된다.

다섯째, 결혼이주여성의 대처전략은 문화적응태도를 매개로 간접적인 경로로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결정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의 대처전략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대처전략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관계가 있음을 설명했다[7,13]. 이를 보면 대처전략은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선행요인이라기보다 후행성이거나 상호작용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이주여성의 대처전략이 문화적응태도의 조건을 결정하고, 문화적응태도가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관계로 나타남은 대처전략과 문화적응태도가 상호작용적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박주희 와 정진경[11]의 연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주여성들이 긍정적 대처양식을 사용할수록 통합적인 문화적응 유형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 최혜지[13]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섯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태도는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합과 동화의 긍정적인 문화적응을 보일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이 통합, 동화 유형을 보일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며, 분리, 주변화의 적

응을 보일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 [6, 9, 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로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요인 및 사회적지지, 대처전략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직접 영향이 아닌 문화적응태도를 매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완화지원을 위한 방향이 다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지원이 문화적응스트레스 감소에 집중되기보다 긍정적인 문화적응태도 형성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시사한다. 즉 우리사회의 결혼이주여성의 긍정적인 문화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함께 문화적응태도에 초점을 두는 정책과 실천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 문화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동화의 관점에서 벗어나 통합될 수 있도록 남편이나 시댁 등 가족이 이주여성국의 문화를 수용하고 함께할 수 있는 실천적 접근이 요구된다. 모든 가족구성원을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 차원에서 이주여성의 모국 문화와 주류사회 문화의 정체성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과 실천이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에 따른 스트레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동화의 차원이 아닌 보다 통합적인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정책이 이들 여성의 문화적응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다문화정책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 [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7, Available From: <http://www.kosis.kr/index/index.do>
- [2] I. A.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Immigrant Women's Acculturative Stress on their Dyadic Adjustment -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family resilience-",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1, No. 4, pp. 1-26, April, 2017.
- [3] Liebkind, K., "Acculturation and Stress Vietnamese Refugees in Finland",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pp. 161-180, March, 1996.
- [4] S. H. Song , H. J. An, "Experience of Child-Rearing of Filipino Married Immigrant Women",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Vol. 20, No. 2, pp. 167-179, June, 2011.

- [5] J. S. Lee, "The Variables Affecting Acculturative Stress of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19, No. 6, pp. 919-932, dec. 2010.
- [6] O. K. Yang, M. K. Song, S. W. Im, "A Study on acculturation stress of internationally-married female migrant in seoul",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14, No. 1, pp. 137-168, 2009.
- [7] J. H. Ahn, J. H. Cho, "Psychosocial and cultural Predi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Marriage Immigrant Women in the Chungcheongnam-do area of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32, pp. 137-176, June, 2011.
- [8] Sims, W. L., "A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of Foreign Work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9, No. 6, pp.899-910, 2009.
- [9] H. N. No, "A Study on acculturation stress of internationally-married china-female migrant", Master's Thesis, Ewha Univ. 2007.
- [10] H. J. Kim, S. K. Un, "A Qualitative Study on the Coping Strategies of the Migrant Women Married to Korean Men -A Case Study of Philippine Women-", *Ko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35, pp.33-66, Winter, 2007.
- [11] J. H. Park, J. K. Chung, "Acculturation and Identity of Immigrant Wives of International Marriage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Women Psychology*, Vol. 12, No. 4, pp.395-432, 2007.
- [12] Kotic, A, "Acculturation Strategies, Coping Process and Acculturative stres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Vol. 45, No. 4, pp.269-278, 2004.
- [13] H. J. Choi, "A Study of Acculturation Strategy and Characteristic for Immigrated Women", *Ko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pp.163-194, 2009.
- [14] E. J. Park, "A Study on Acculturation stress and Psychological Health of Immigrated Women", Master's Thesis, Chungnam Univ. 2007.
- [15] E. S. Sohn,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38, pp. 169-199, dec, 2012.
- [16] J. W. Park,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Support scale", A Doctoral Thesis, Yonsei Univ. 1985.
- [17] Lazarus, R. S.,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1984.
- [18] J. H. Kim, "The Operation of Depression on Perceived Stress, Recognition Set and Coping Method", A Doctoral Thesis, Seoul Univ. 1987.
- [19] G. S. Kim, "Amos 7.0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Seoul: Han-na-re, 2007.
- [20] S. H. Park, "Effect of Social Support on Stable Marriage Life in Married Immigrant Women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a Cultural Adaptation Attitud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6, No. 1, pp.89-109, March, 2011.

한 석 우(Suk-Woo Han)

[정회원]



- 2014년 2월 : 광주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정책, 지역사회복지

김 지 운(Ji-Woon Kim)

[정회원]



- 2002년 8월 : 배재대학교 석사
- 2015년 8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
- 2015년 3월 ~ 2015년 9월 : 원광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조교수
- 2015년 10월 ~ 현재 :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복지, 유아음악